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기후 변화 대응책으로 전기 자동차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 선도적 이니셔티브 발표**

**PSC는 2025년까지 50,000개 이상의 충전소 설치를 가속화하고 전기 자동차의 수와 범위를 늘리기 위한 '전기차 준비' 이니셔티브를 승인**

**15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26억 달러 규모 이상의 소비자 이익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혁신 청정 운송 공모전 수상자 3명에게 8,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2억 6백만 달러의 자금 확보**

**폭스바겐 합의금 4,880만 달러는 청정 대중교통, 스쿨버스,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에 배정**

**뉴욕주가 이번주 초 14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와 협력하여 버스와 트럭 전기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 지원**

**이번 발표는 2050년까지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뉴욕주의 목표 강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New York 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 PSC)가 승인한 "준비(Make Ready)" 정책 등 운송 부문 청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뉴욕의 노력을 한층 강화할 주요 청정 운송 이니셔티브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2050년까지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고 주 전체 탄소 배출량을 85 퍼센트 감축하며, 뉴욕이 14개 주, 워싱턴 D.C.와 협력하여 2050년까지 디젤 버스 및 트럭을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발표하는 등 Cuomo 주지사의 국가 선도적인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기후 변화 대응 및 혁신적인 청정 에너지 정책을 통한 전력 시스템을 재설계 등의 노력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량 및 중형 트럭과 버스를 포함한 차량의 무탄소화를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준비(EV Make Ready)' 프로그램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운송 부문의 전기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모든 뉴욕 주민이

청결한 공기, 고소득의 신규 일자리를 포함하여 이러한 전환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송 부문은 미국의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이며, 이러한 배출량은 지난 30년 동안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신속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개발되도록 촉진할 경우, 뉴욕 주민은 26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누리고 뉴욕주의 교통 전기화 및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운송 부문 전기화를 통해 뉴욕 주민들은 더욱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재생 에너지가 주 전체의 전기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합니다. 충전 인프라의 신중한 배치를 통해 설치 비용 절감, 사이트 호스트 수용 개선, 운전자 사용 극대화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준비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에서 자금을 지원 받으며 소비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장소에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유틸리티 및 충전소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용 공유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PSC의 명령에 따라 총 예산은 최대 7억 1백만 달러이며 2025년까지 2억 6백만 달러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 충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0 퍼센트까지 지원하는 더욱 강력한 인센티브 수령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은 서비스 제공업체인 PSEG 롱아일랜드(PSEG Long Island)와 함께 2025년까지 롱아일랜드에 신규 전기차 180,000대, 신규 전기 충전 포트 4,650개 설치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준비 인프라에 2021년 440만 달러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 업체의 준비 기금과 더불어,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폭스바겐 디젤 배출량 합의금 중 4,880만 달러를 이용하여, 버스 및 스쿨버스 운영자 및 전기 충전소 소유자까지 지역 전기차 인프라, 청정 대중교통 옵션, 전기 스쿨버스 증대를 추진하도록 합니다.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공공 고속 충전 스테이션이 단기적으로 짧은 이동거리에 대한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존 벽면 콘센트보다 최소 두 배 빠르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레벨 2 충전 플러그 50,000개를 비롯해 뉴욕에 공공 직접 고속 충전 스테이션 1,500곳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에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 스테이션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향후 몇 년 동안 뉴욕의 전기차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추진 노력은 우선 뉴욕주의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 업체가 맡게 되며, 미국의 유틸리티 노동자 연합(Utility Workers Union of America)과 국제 전기 노동자 연합(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 Workers) 등 근로자들은 적정 임금 또는 그 이상을 지급 받습니다. 가능한 경우, 뉴욕주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ERDA)은 청에서 시행하는 공모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은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다섯 개의 주요 대중 교통 사업자의 버스를 전기화겠다는 주지사의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공약의 일환으로,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과 NYSEERDA는 이러한 운송 사업자와 협력하여 버스 배출가스 완전 감축을 막는 문제를 연구하고 버스 옵션, 충전 요구, 기타 물류 문제 등 전기화 대책 마련을 위해 최대 1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경량 및 중대형 차량의 전기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이번주 발표 내용인 다수의 주와 협력하여 중대형 차량 전기화를 추진한다는 양해각서(MOU)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는 유틸리티 업체에 플릿 평가 서비스(Fleet Assessment Service)를 신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타당성 및 속도 분석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비용 및 시간 절약 시너지 효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령에 따라 실시되는 충전 인프라 설치를 통해 일반 대중의 전기차 어답터 충전이 더욱 용이해지고, 가정 충전에 혁신적인 요금을 지정하여 피크 시간 외 충전을 촉진하여 유틸리티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전기차 이니셔티브를 진행하는 가운데 효율 설계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깨끗한 교통수단 사용을 장려한다는 뉴욕주의 종합 공약으로, 뉴욕주는 EV 사용 장려의 국가적 리더이자 충전 인프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니셔티브 및 프로그램은 2025년 말까지 EV 충전소 10,000개 설치, 2025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방출 차량 850,000대 달성 및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NYSEERDA의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6월 기준 3,5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리베이트가 지급되어 25,000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차량 및 트럭 전기화를 추진하여 환경적 정의를 실현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위원회는 또한 NYSEERDA에 통합 공모전을 열도록 지시했습니다. 본 공모전은 전기차 준비 총 예산에서 최대 8,500만 달러를 사용하며 직접 고밀집 및 혼잡한 도로, 공공 고속도로 인근 지역사회에서 배출가스, 평등, 전기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됩니다. 공모전 분야는 총 세 개로, 청정 운송 옵션을 원하여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지원하고 환경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 환경 정의 커뮤니티 청정 차량 변화 공모전(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y Clean Vehicles Transformation Prize)은 4,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최전선 지역사회에서 유독한 공기 오염을 감축하고 뉴욕주 전역에 운송 "그린 존"을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청정 퍼스널 모빌리티 공모전(Clean Personal Mobility Prize)은 2,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지역사회에서 깨끗한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높은 접근법을 추진합니다.
- 청정 중대형 차량 혁신 공모전(Clean Medium- and Heavy-Duty Vehicle Innovation Prize)은 2,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직접 혜택을 창출하고 기회, 비용, 이익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범주의 차량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배출원 중 하나인 "라스트 마일" 등 대규모 전환이 가능한 중대형 차량 전기화에 대한 혁신적이고 효과가 높은 접근법을 개발합니다.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주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주 주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 DOS)는 주지사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을 통해 도심에 DC 고속 충전기의 배치를 크게 확대하기 위해 뉴욕주 전력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DOS와 NYPA는 지방 정부 및 주요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공공 고속 충전기를 설치에 흥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DRI 참여 지역사회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시내 충전기는 2021년 가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볼브 뉴욕(Evolve NY) 이니셔티브를 통해 NYPA는 최근 허드슨 중부 지역에 새로운 DC 고속 충전기 스테이션 두 곳을 설치했으며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와 협력하여 플라자 충전소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John B. Rhodes**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탄소 중립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운송 시스템의 신속한 전기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명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중심지에 위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의 수를 크게 늘려 전기차 이용 고객에게 혜택을 주고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청정 운송의 장벽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주정부가 선도하는 기후 관련 조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가를 선도하는 주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뉴욕은 현재 가장 큰 기후 오염의 원인인 운송 부문 배출량을 반드시 줄여야만 합니다. 오늘 발표는 기후 정책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및 주정부의 지속적인 청정 에너지 투자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이 기후 조치를 취하고 지역사회와 귀중한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NYSERDA**의 사장 대행 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친환경 경제 확대 및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성공을 계속 발전시키는 가운데, 오늘의 발표는 유해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운송 부문 문제를 해결하여 성공을 향한 걸음 더 내딛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NYSERDA는 경제 전반에서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비전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비전은 온실가스 감축, 신규 혁신 운송법 개발을 비롯해 유해 화석 연료 중심 운송 인프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청정 에너지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대규모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공평한 전환에 필요한 투자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청장 겸 최고 경영자인 Gil C. Quini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PA는 탄소 중립화라는 Cuomo 주지사의 대담하고 혁신적인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준비 프로그램은 종합적인 주정부 및 유틸리티 업체의 전기차 프로그램이 가진 최대한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운송 부문의 전기화 및 그로 인한 모든 혜택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오늘날 NYPA [이볼브 뉴욕](#) 팀은 뉴욕의 고속도로와 샷길, 시내 중심지, 시외 다운타운, 업스테이트 및 다운스테이트의 이용량이 많은 데포에 고속 충전 장비를 설치하여 전기차 이용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NYPA는 모든 곳에서 대중 교통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 운전자는 짧은 운행 거리로 인한 불안을 줄이고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이 전기차를 운전하면서 우리의 위대한 뉴욕주 모든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무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혁신적이고 국민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개발 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 전략 시행 평가팀(Strategic Implementation Assessment Team)의 위원장이자 주지사 직속 기후 대응 위원회(Governor's Climate Action Council)의 일원으로서, 저는 우리 기관이 다운타운에서 빠르게 전기차 충전을 제공하기 위해 다운타운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프로그램(Downtown Revitalization Program)을 통해 우리의 리더십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종합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 변화에 대해 걱정하지만 집에서 충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충전에 대한 접근 장벽을 허물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다운타운 개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부는 공공 서비스 위원회 및 환경보존부와 협력하여 운송 시스템 전기화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뉴욕주의 공약을 추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승인 받은 전략적 투자는 전기차 충전소 및 지원 인프라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전기 전용차 배치를 가속화할 자금을 제공하여 Cuomo 주지사의 탄소 중립성 목표를 지원할 것입니다. 환경 책임을 준수하는 투자에 대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관심은 공기의 질 및 공중 보건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계속 지속 가능한 양질의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 LIPA)의 Tom Falcone**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확대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은 기후와 경제를 위한 기회입니다. 여기 롱아일랜드에는 뉴욕의 모든 전기 자동차 중 약 1/3이 있으며, 우리는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 4,500곳을 설치하여 2025년까지 지역

전기차 180,000대를 지원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발표는 탄소 배출량, 대기 오염을 줄이고 뉴욕에서 강력한 친환경 경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 뉴욕주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계획

Cuomo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계획은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주 빌즈 백 베타(New York State Builds Back Better)로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을 통해 법제화를 마친 뉴욕은 2040년까지 다른 주정부보다 빠르게 경제 전반의 탄소 중립성과 전기 부문 제로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67개에 대한 39억 달러의 투자, 뉴욕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2024년까지 연안 해상 풍력 1,800 메가와트 개발, 2012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700퍼센트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에너지에 기반합니다. 뉴욕의 기후 대책 위원회(Climate Action Council)는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 퍼센트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의 이익의 최소 40퍼센트 이상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